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

특별호

Vol.07 지역안전지수 편

CONTENTS

- 01 **SAFETY GRAPHIC**
안전그래픽으로 보는 세종시 지역안전지수
- 02 **INTERVIEW 0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신진동 연구관
- 03 **INTERVIEW 02**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지만석 과장
- 04 **Q&A**
지역안전지수, 그것이 알고 싶다!
- 05 **SAFETY TIP**
세종시의 지역안전지수는 몇 등급?
- 06 **SAFETY CASE**
지역안전지수 우수활용사례
- 07 **SAFETY MANUAL**
세종시 지역안전지수, 1등급이 되기까지
- 08 **코로나19 행동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세종시의 지역안전

우리 지역의 안전 중 취약한 부분을 찾아주고, 보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
 2020년 올해 세종시는 지역안전지수 6가지 분야 중 화재, 범죄, 자살 분야 안전은 관심을 갖고 돌볼수록 튼튼해지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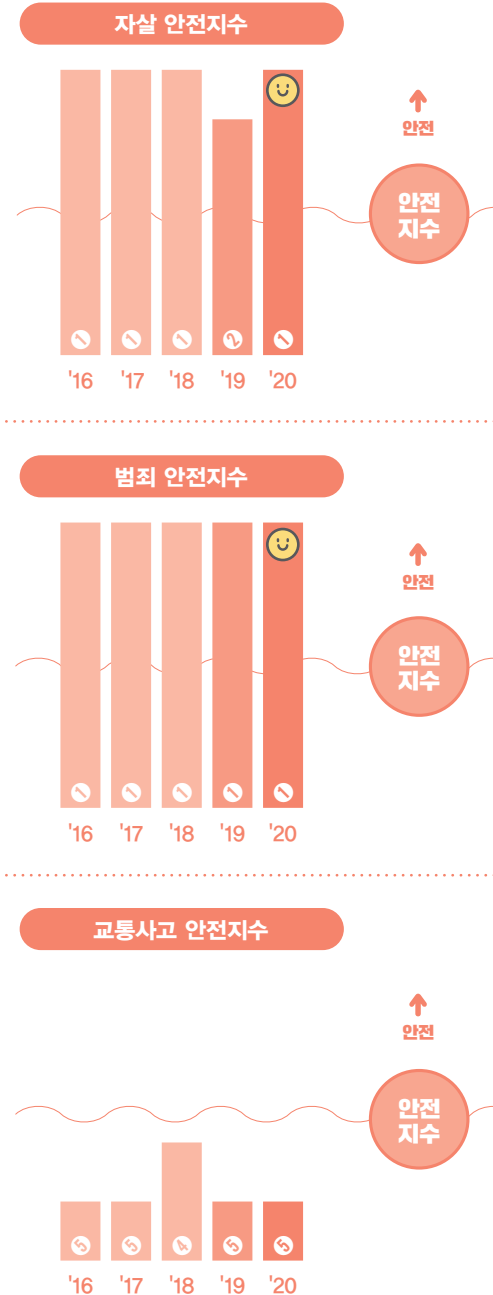


2020년 세종시 지역안전지수 2019년 통계기준



- 2020년 세종시 지역안전지수는 화재, 범죄, 자살 분야에서 1등급으로 나타났고, 감염병이 2등급, 생활안전과 교통분야가 각각 5등급으로 나타났다.
- 6가지 분야 중 3가지 분야에서 1등급을 확보하면서 특·광역시 8곳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차지했다. 다소 낮은 등급을 받은 교통과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철저한 대책 마련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종시 지역안전지수 5개년(201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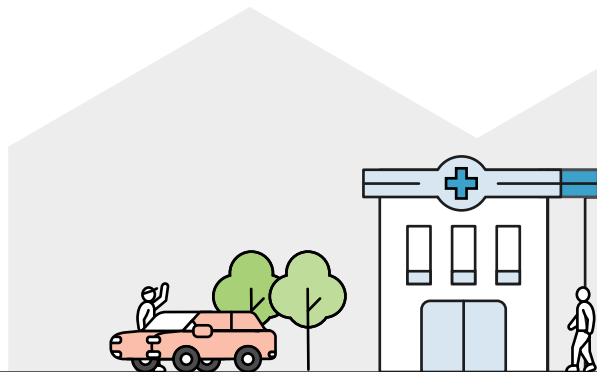
* 2015년 ~ 2019년 통계 기준

*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알려주는 지역안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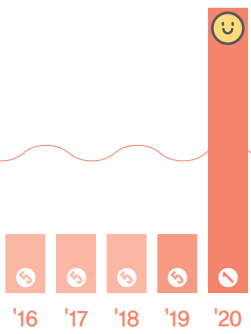
안전지수는 몇 등급?

안전한 길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역안전지수!
 분야에서 1등급을 확보하며 특·광역시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를 통해 세종시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6년 ~ 2020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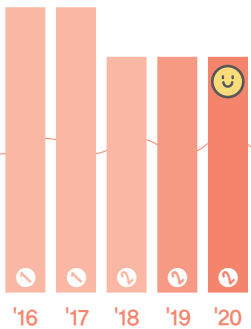
화재 안전지수



생활안전 안전지수



감염병 안전지수



위해지표*로 보는 세종의 안전

자살

통계	자살 사망자수	2020년	73명
지표	인구 만명당 자살 사망자수	2020년	2.11
		2015 ~ 19년 평균	1.96

화재

통계	화재 사망자수	2020년	0명
지표	인구 만명당 화재 사망자수	2020년	0
		2015 ~ 19년 평균	0.071

범죄

통계	5대범죄 발생건수	2020년	1,777건
지표	인구 만명당 5대범죄 사망자수	2020년	51.32
		2015 ~ 19년 평균	49.78

생활안전

통계	생활안전 구급건수	2020년	1,062건
지표	인구 만명당 생활안전 구급건수	2020년	30.67
		2015 ~ 19년 평균	32.38

교통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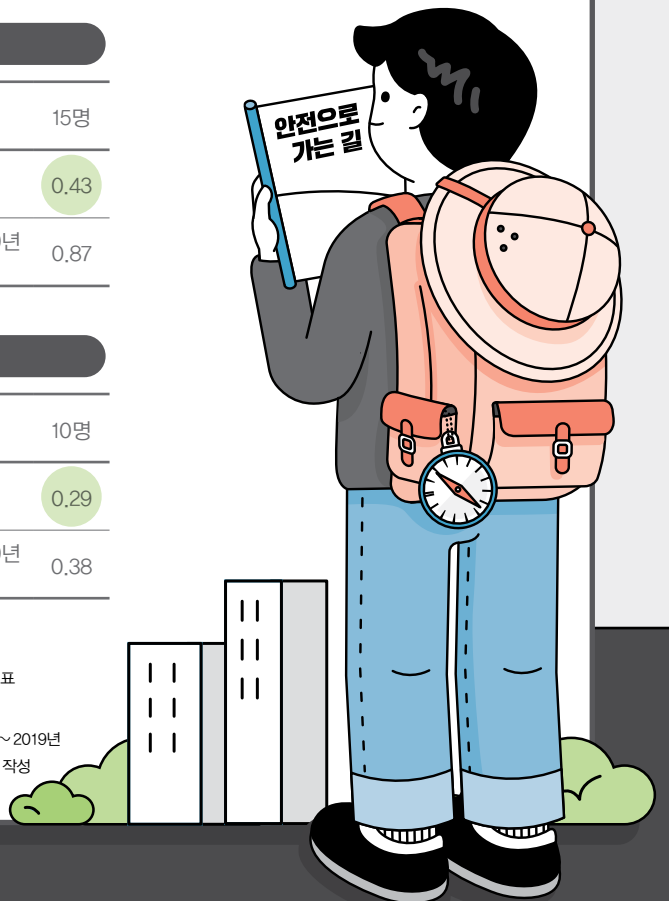
통계	교통사고 사망자수	2020년	15명
지표	인구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2020년	0.43
		2015 ~ 19년 평균	0.87

감염병

통계	법정감염병 사망자수	2020년	10명
지표	인구 만명당 법정감염병 사망자수	2020년	0.29
		2015 ~ 19년 평균	0.38

* 위해지표
 분야별 사망자수 및 발생건수 등의 결과 지표
 (교통사고 사망자, 5대 범죄 발생건수 등)

* 2020년 위해지표는 2019년 통계, 2015년~2019년 평균값은 2014년~2018년 통계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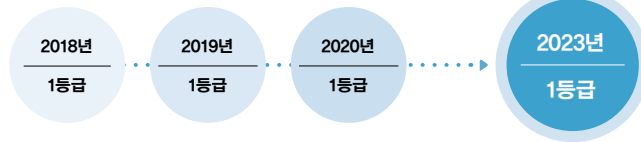
세종시 지역안전지수, 1등급이 되기까지

세종시는 매년 공표되는 6개 분야에 대한 지역안전지수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범죄 분야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살 및 감염병 분야도 우수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분야의 경우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안전한 분야는 더 탄탄하게 다지고, 취약한 분야는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안전도시를 만들어가려는 세종시의 노력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범죄 분야

**1등급,
놓치지
않을 거예요!**

최근 3년간의 지표



이후 3년 뒤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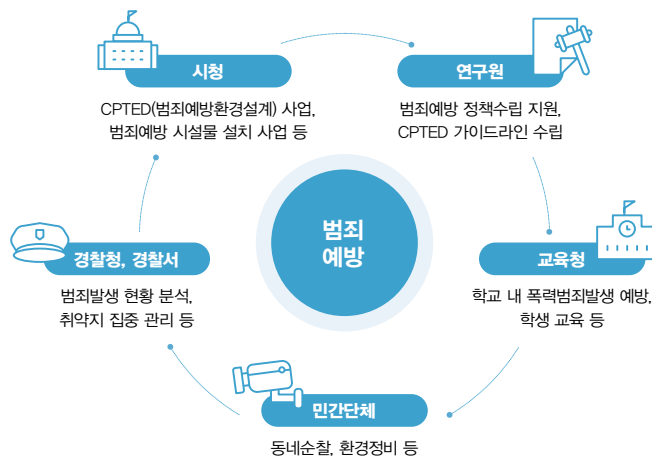
**세종시의
범죄현황은
어떨까요?**

세종시는 최근 3년간 5대 범죄의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1만명당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51.3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구분		5대 범죄 발생건수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5대범죄 발생건수	세종	1,371건	1371건	1395건
인구 만명당 5대범죄 발생건수	세종	48.24	43.72	51.32
	특·광역시 평균	92.71	89.44	91.54

**범죄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세종시의 관련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각종 범죄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는 도시, 세종시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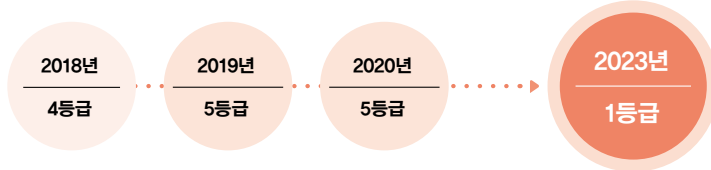
세종시 지역안전지수, 1등급이 되기까지

교통사고 분야

'안전'으로의 도약을 위한 준비

최근 3년간의 지표

이후 3년 뒤 목표



Step.01

교통사고 분야 지표 검토하기!

지역안전지수를 구성하는 위해지표, 환경지표, 경감지표 파악
(인구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도로면적당 교통단속 CCTV대수 小 등)

구분(가중치)	지표명
위해(50%)	• 교통사고 사망자 수
환경(20%)	• 재난약자수 • 의료보장 사업장수 • 자동차 등록대수
경감(30%)	• 행정구역 면적당 응급의료기관 수 • 도로면적당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예산액 • 운전시 안전벨트 착용률

Step.02

세종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꼼꼼히 파 악하기!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도시형성기)에 따른 통행량 증가 및 자동차등록대수 증가
- 도심 외곽지역(국도, 지방도)에서의 사망자 발생 집중
- 교통단속 CCTV 부족
-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낮음
- 도로면적당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예산액 부족



Step.03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추 진하기!

-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112개소)
-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 시민감동과제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 추진
- 신도심 내 안전속도 5030제 운영 및 비신호 교차로 일시정지 운영
-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운영
-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안전없이 행복없다' 교통사고 제로를 위한 세종시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민과 함께 안전한 세종을 만듭니다!

① 시민중심의 안전도시위원회

시민이 직접 안전정책을 제안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안전도시위원회 운영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도시사업의 정책심의 및
조정기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4년 10월 30일 발족하였으며,
시민, 유관기관, 안전전문가, 언론인,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

매월 지역주민과 함께
안전취약지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수행



② 국제안전도시 인증

2018년 1월 31일
국제안전공인도시공인센터(ISCCC)로부터
시민안전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기반 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인증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안전분야별 101개 안전증진 사업 수행

안전도시 7개 기준을 충족시켜 국내에서 14번째,
광역시자치단체로는 4번째로 국제안전도시 인증

국제안전도시는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뜻함



INTERVIEW 01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신진동 연구관

세계 유일! 지역안전지수를 아시나요?

안전에 관한 주요 통계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분야별로 지수화한 '지역안전지수'를 아시나요? 지역안전지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개발하여 2015년부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고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분야별 안전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신진동 연구관과 함께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프리랜서 작가 이윤숙(이하 이) | 먼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대한 소개와 담당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신진동 연구관(이하 신)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총괄 연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실용적인 재난·안전·관리기술을 개발해서 이것이 바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치단체가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안전관리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가 안전관리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과물이 바로 지역안전지수입니다.

이 | 정부는 2015년부터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역안전지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신 |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안전지수 공표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지역안전지수는 일단 3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지역안전지수는 '객관적 안전 수준'을 진단해 주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개되는 재난 안전 통계가 약 600여종 되는데요. 통계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고 원인과 장소, 시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통계들을 취합해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로 나누고 이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알기 쉽게 지수화한 겁니다. 둘째, 지역안전지수는 안전 관련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객관적인 안전 수준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이 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안전관리 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역안전지수는 통계를 기반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취약한 원인 등을 제공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 지역안전지수는 그럼 어떻게 등급을 나누는 건가요?

신 | 만약 해비급과 라이트급이 경기를 한다면 항상 해비급이 이길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 라이트급은 싸울 의지가 약해질 겁니다. 지역안전지수 역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곳은 지수가 높고 그렇지 않으면 지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표준 지표로 쓰고, 안전관리 역량, 인프라, 행정체계 등이 유사한 지역을 특·광역시와 도, 시, 군, 구 5개 그룹으로 나누고요. 이 그룹을 6개 분야별로 구분해 5개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죠. 1등급은 10%, 2등급은 25%, 3등급은 30%, 4등급은 25%, 5등급은 10%의 비율로 나누는데요. 지역안전지수의 등급은 어느 자치단체든 노력하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 매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신 | 지역안전지수를 2015년부터 5년째 공표하면서 먼저 안전관리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지역의 객관적인 안전 수준을 측정할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민선 자치단체장의 안전 성과표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역안전지수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안전관리 정책이 사고에 대한 원인 진단 없이 민원 해결과 기존 정책의 분석없이 관습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역안전지수가 공표되면서 지역의 안전 취약 분야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해주는 안전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원인 진단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안전사고 사망자 등을 체계적으로 감축하고 지역안전지수 등급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 지역안전지수에 대해 연구하시면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 | 데이터 기반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공개된 통계자료만을 활용해 자치단체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안전 수준을 진단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던 건 45개 시범 지자체의 고충을 들었던 겁니다. 이 지자체에서 원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3無 개념이 정립되었는데요. 3無원칙 중 1無는 안전지수 산출만을 목적으로 자치단체에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고요. 2無는 자치단체의 객관적 안전 수준 측정을 위해 진 단과정에서 평가자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無는 사망자를 감축시키지 못하는 사업들은 지수 등급 개선에 효과가 없습니다. 때문에 자치단체도 철저하게 지수를 바탕으로 증거 기반 정책을 하고 사업효과를 내서 개선을 해 가는 겁니다.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연말부터 시행되는데요. 이 지역안전지수를 10년 전에 만들었을 때는 모든 게 난관이었습니다. 10년을 먼저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움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이 | 지역안전지수를 해마다 발표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나 한계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신 | 지역안전지수는 공표된 이후 자치단체의 후속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한 진단도 있었지만 내게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것이 좀 더 미래지향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지역안전 지수를 놓고 자치단체가 지수등급 결과에만 매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안전지수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진단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 이동이 있다 보니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후속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 지역안전지수에서 더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 | 안전사고는 인프라와 주민 의식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에서도 안전지수는 객관적 안전 수준과 안전의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역의 객관적인 안전 수준 측정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의식 또한 지역의 안전환경에 중요한 변수임을 고려할 때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2~3년 안에 안전의식이 포함된 지역안전지수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통계로 하다 보니까 시차가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실시간 통계 자료 등이 생산되고 공개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년단위 격차를 월단위 격차로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윤숙(프리랜서 작가) 사진 제공 | 대전세종연구원

INTERVIEW 02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지만석 과장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 그러나 알아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지역안전지수를 바탕으로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실질적인 제도나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의 지만석 과장을 만나 어떤 제도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프리랜서 작가 이윤숙(이하 이) |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만석 과장(이하 지) |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전문적인 분석이라든지 진단 등을 수행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실질적인 제도나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안전지수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안전지수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 정부는 해마다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안전지수를 개발하여 공표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 | 지역안전지수를 10여 년간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가 OECD 37개 회원국 중 취약하더라고요. 때문에 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 우리가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고자 지역안전지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중앙 부처에서 단편적인 평가를 많이 진행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업에 대한 평가였죠. 그래서 실제로 지역 안전 수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자는 의도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첫 사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정확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 지역안전지수를 매년 발표하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요?

지 | 지역안전지수 공표는 자치단체의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단순히 자치단체장의 치적이라든지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감추는 것보다 자치단체에서 유의미하게 활용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저희는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함과 동시에 관련 통계들을 자치단체에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자치단체의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 지역안전지수가 활용된 사례 중 소개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지 | 많은 사례가 있지만 녹차로 유명한 보성군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성군의 경우 6개 분야 모두에서 4~5등급을 받아 안전 여건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담당자는 지수의 환경지표인 재난약자(학생들과 노인)가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실제 교통사고 사망자 중 70%가 재난약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식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놀랍게도 감염병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등급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수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사고원인들을 진단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조치원 오거리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문제점을 찾고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통계만 잘 분석해도 충분히 사고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 | 지역안전지수는 국민들에게 때로는 안도감과 때로는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하는데요.



국민들이 지역안전지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 | 지역안전지수를 가지고 국민들께서 안도하거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역안전지수가 1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지역안전지수가 5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OECD 국가 중 범죄나 화재가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평균보다 좋은 걸로 나옵니다. 교통사고나 자살 등은 하위 점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혀 안도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 없이 현재 상황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논의의 시작점으로 생각하고 개선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주민 참여뿐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가장 필요합니다. 올해는 시도연구원과 연계해 지역의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 지역안전지수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있나요?

지 |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지역안전지수 하위 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5%를 지원하다가 현재는 하위 등급인 자치단체에 3%, 노력하고 있는 자치단체 2%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사고는 인프라적 문제와 의식의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인프라는 낮지만 의식을 끌어올려주면 지수가 개선되기도 하고, 의식은 낮더라도 인프라 즉 예산을 투입해 주변 지수가 개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고의 원인은 이 두 가지가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하여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 지역안전지수 외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 | 자연재난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직접 조정 총괄하고 있고요. 코로나 같은 사회재난의 경우 주무 부처가 있습니다. 행안부는 법정부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총괄 조정하거나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안전정책관실의 경우는 지역안전지수나 통계 같은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 자연재난 예방사업이나 안전 취약계층의 맞춤형 사업을 하거나 지방도로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며 재난안전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지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안전지수의 문제점을 찾아 매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안전지수가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으면 합니다. 이 지역안전지수를 전국 단위로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오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이 객관적인 수치를 잘 활용한다면 지역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A

지역안전지수, 그것이 알고 싶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을 가리키는 나침반, '지역안전지수'는 자치단체별 안전 수준을 계량화한 등급인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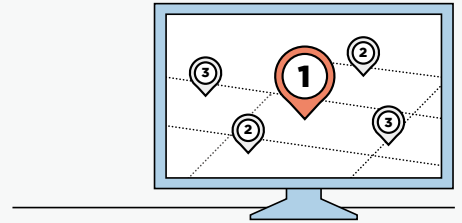
어디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이 받은 등급의 의미는 무엇인지 시민들이 궁금해할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정리 | 오호라(오세이프 에디터)

Q 지역안전지수는 언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매년 12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 및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지역안전등급을 공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업무안내 ▶ 안전정책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www.ndmi.go.kr
- 생활안전지도 www.safemap.go.kr
생활안전지도 ▶ 지역안전지수 등급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등 6개 분야에 대해
특·광역시/도, 시/군/구 지역별로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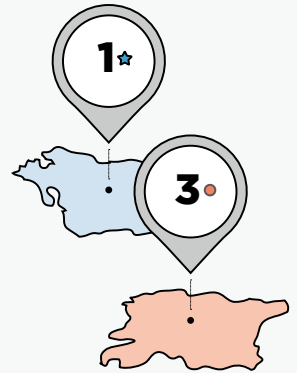


Q 우리 지역이 받은 등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지역안전지수는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숫자 특·광역시/도, 시/군/구 5개 비교 그룹 내에서 해당 연도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준 (1등급일수록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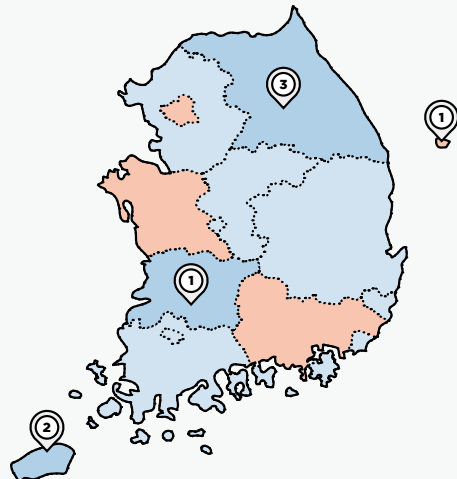
- ★ 전년대비 등급 상승 수
- 전년대비 등급 상승은 없지만 위해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된 지역



Q 지역안전지수 등급은 절대등급인가요, 상대등급인가요?

A 지역안전지수는 산출 모형에 각 지표 값을 투입하여 나온 결과로 각 특·광역시/도, 시/군/구별 상대등급으로 산출합니다.

지역안전지수
산출 모형



안전을 가리키는 나침반, '지역안전지수'

지역안전지수, 그것이 궁금하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 수준을 나타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에 따라 매년 지역안전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지역안전지수는 지금 몇 등급일까요? 그리고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1 지역안전지수는 무엇인가요?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안전 수준을 계량화한 등급입니다. 1~5등급으로 나뉘고 1등급일수록 동일 단위 행정구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2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사업 등 자율적 개선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지역안전지수를 산출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4 지역안전지수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지역안전지수는 "100-위험도" 개념의 모형을 통해 산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수준을 나타내는 100을 기준 값으로 '위해지표 값'과 '환경지표 값'을 각각 빼고, 경감지표 값을 더해서 지역안전지수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위해지표 값과 환경지표 값은 낮을수록, 경감지표 값은 높을수록 지수산출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산출식은 지표 간의 범위가 상이함을 고려하여 몇 단계의 상세와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text{안전지수} = 100 - (\text{위해지표} + \text{환경지표} - \text{경감지표})$$

$$= 100 - \left\{ + \sum_{i=1}^n (\omega_i \times H_i) + \sum_{j=1}^m (\alpha_j \times C_j) - \sum_{k=1}^o (\beta_k \times M_k) \right\}$$

ω_i 위해지표별 가중치

H_i 위해(harm)지표 점수

α_j 환경지표별 가중치

C_j 환경지표 점수

β_k 경감지표별 가중치

M_k 경감(mitigation)지표 점수

5 지표 정의

위해지표

환경지표

경감지표

분야별 사망자수 및 발생건수 등의 결과 지표
(교통사고 사망자, 5대 범죄 발생건수 등)

사망자 발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지표
(재난약자수, 노후건축물수 등)

사망자 발생 등을 경감할 수 있는 지표
(경찰총사자수, 의료기관수)

6 등급 산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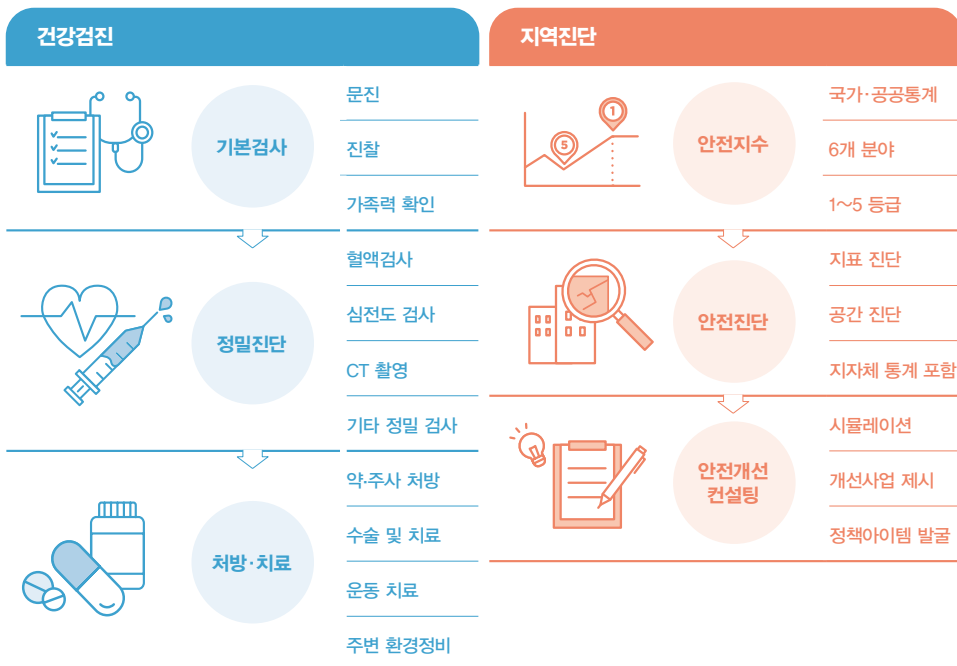
- 모든 지표는 인구 또는 행정구역 면적 등으로 표준화하여 활용됩니다.
- 안전등급은 분야별로 각각 산정되며 종합등급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지역 특성(도시 및 농촌)을 고려하여 특·광역시/도, 시/군/구 그룹별로 등급을 부여합니다.
- 전국 지자체 분야별 표준편차* 등을 고려하여 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로 설정했습니다.

구분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룹별 등급 비율		100%	10%	25%	30%	25%	10%	
지자체수	특·광역시/도	특·광역시	8개	1개	2개	2개	2개	1개
		도	9개	1개	2개	3개	2개	1개
	기초	시	75개	7개	19개	22개	19개	8개
		군	82개	8개	20개	25개	21개	8개
		구	69개	7개	17개	21개	17개	7개

* 통계 집단의 각 변수 값이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

7 지역안전지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지역안전지수는 건강검진을 받듯 6가지 분야를 기반으로 한 통계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안전 수준을 계량화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면 더 건강해지기 위해 치료를 받거나 운동을 하는 것처럼 지역안전지수 역시 결과가 나오면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지역안전지수라는 결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며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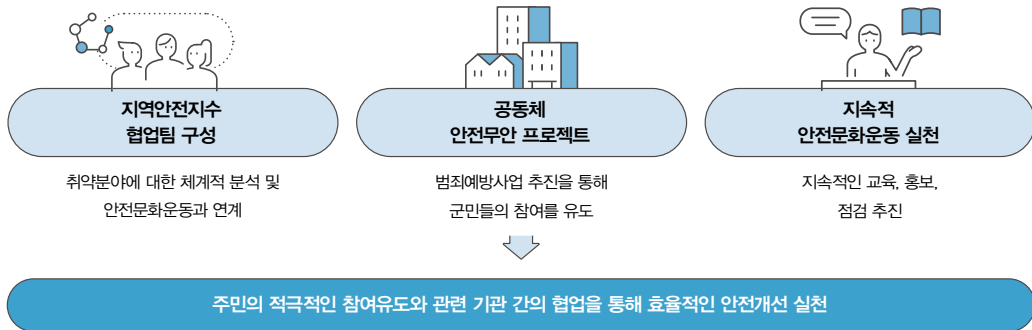
지역안전지수와 함께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CASE 01 : 전남 무안군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다”

무안군은 지역안전지수 개선 협업팀을 구성(2017.03)하여 취약 분야에 대한 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동체 안전무안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안전문화운동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민간주체 자율 안전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기적인 협업 체계가 발전하면서 5년 연속 생활안전 분야 1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 유관기관(소방-경찰-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실시간 사망·발생통계 수급체계 마련 무안군 대통령표창수상
-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및 홍보 캠페인
- 취약계층 생활안전 점검 및 안전물품 보급
- 독거노인 고독사 미연방지 및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안전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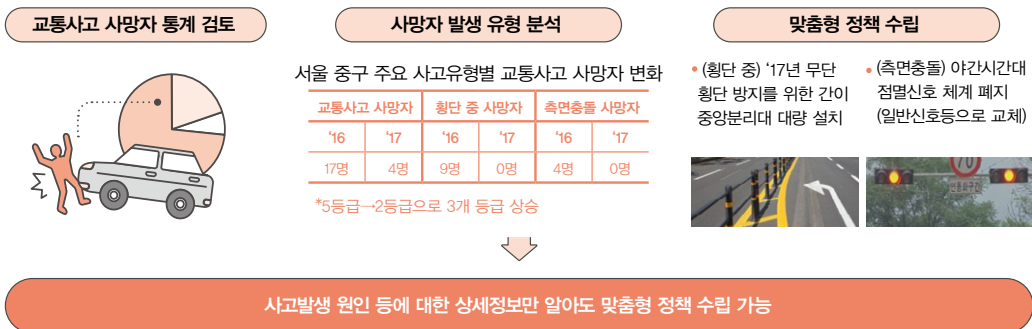


CASE 02 : 서울 중구 “주민참여와 기관협업으로 안전문화를 실천하다”

서울시 중구에서는 안전개선은 함께 하는 것이며, 취약(원인) 지표는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라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지역 내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분야에서 받은 등급을 2등급으로 3등급 상승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내용

- ‘교통사고’ 5등급 ▶ 2등급으로 3개 등급 상승
- 2017년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간이중앙분리대 대량 설치 ▶ 횡단 중 사망자 대폭 감소
- 야간시간대 점멸신호 체계 폐지 ▶ 측면충돌 사망자 감소(4명 → 0명)



COVER STORY

안전도시 세종, 그 시작은 지역안전지수 개선으로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통계와 지수를 접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저문기구(SDSN)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행복지수,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통계 또는 지수를 활용해 우리는 현재 상태를 확인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합니다. 이번 호의 주제인 지역안전지수도 도시의 '안전 수준'을 지수화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얼마나 안전한지, 어떠한 분야가 취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아직 건설 단계에 있는 도시로 지역안전지수의 분야간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최고등급을 받는 분야도 있지만, 최하등급을 받는 분야도 있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지역안전지수를 토대로 취약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더 발전하여 지역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의 일곱 번째 이야기, '지역안전지수' 편은 특별히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한 지역안전개선의 시작, 세종시에서 시작된 작은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발행·기획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소	편집위원	심준우 / 민경환 / 유정	디자인·제작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
발행일	2020년 12월	에디터	오호라	디자이너	정진아
		취재	이윤숙(프리랜서 작가)	문의	044-300-3613~4



본 매거진 특별호는 대전세종연구원·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협업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
KCDC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유증상자* 예방수칙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지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